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1년도 표어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행동지침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 전화: (02)558-1106 | 팩스: (02) 558-2107 | www.seoulchurch.or.kr

교육, 선교, 구제의 세 기둥 든든히 세우려고

-한 주간 프로그램 은혜롭게 다루어져야-

우리교회는 교육, 선교, 구제의 세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 교회중심, 성경중심의 생활 원리를 실천해 가고 있다. 이번 한 주간 행사가 그것들을 입증하는 것이다. 월요일(23일) 목회자 신학세미나, 화요일(24일) 주부대학 및 강남노회 목사회 목요일(26일) 농어촌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 금요일(27일) 탈북난민 초청 위로회 및 UN청원 1000만명 서명 돌과 감사예배 및 UN청원 대표단 파송식 토요일(28일) 육사

세례식,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대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는 기둥의 역할을 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이들은 깊은 기도를 우선하고 은혜로운 방법으로 범사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탈북난민 보호 UN청원 우리교회에서 70만명 서명-전체 일천백만명 넘어

탈북난민 보호 UN청원 운동이 추진된 지 만 2년만에 일천만명 서명을 달성했다. 이 같은 결과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요 둘째는 이 나라 크리스찬을 비롯한 전세계 양심 있는 이들의 열화 같은 기도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며 셋째는 이 일에 사명감을 갖고 헌신한 이들이 있었기에 맺어진 열매라 할 수 있다. 전체 서명(4.18 현재)자 수는 11,059,330 명이고 이 중 한국인은 10,941,099 명이며 외국인인 118,231 명으로 나타났다.

우리교회에서는 70만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그 중 10만 명 이상 서명을 받은 이가 박순봉 권사, 김세재 집사, 김인식 권사 그리고 5만명 이상은 김선미 권사 김현주 권사, 3만명 이상 한명순 집사, 홍성주 집사 2만명 이상 함송현 권사 1만명 이상 이학주 집사, 이수자 권사, 이민화 권사, 우상태 집사 등으로 밝혀졌다.

예전부를 운영한다

우리교회는 허례허식, 낭비 등을 불식하고 절약과 성경적 윤리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혼인예식 및 피로연을 정착시키고자 예전부(부장 윤찬오 장로)를 발족 운영하게 되며 실천사항으로 1. 폐백식은 금하며 가족, 일가, 친척 상견례로 대체한다. 2. 피로연은 외식주문을 금하며 본교회 식당의 식당에 의하고 3. 가격은 1인분-10,000원으로 한정한다. (식사는 국수, 반찬은 8가지로 한정) 4. 혼례를 준비하는 가정은 내빈 하객 숫자를 파악하여 예식 3주전에 교회 사무국에 신청해야 한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 - 예배다부 특강 있다

농아인들이 수시로 아무 부담 없이 드나들며 예배하고 친교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먼저 건청인들이 농아인을 바르게 이해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특강을 준비하였다(오후 1시, 603호). 강사는 홍유미 간사와 안인호 집사이며 홍유미 간사는 건청인들이 농아인과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장애인에 대한 정상인의 예절), 안인호 집사는 청력장애의 원인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 방법, 그리고 청력장애가 언어와 학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강의한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란다.

지난주 이모저모

금주의 행사



부활절 성찬식 - 주님의 보혈과 삶을 기념하며 ④⑤



부활절 새벽예배 - 이른 새벽에 주님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①②③



③



부활절 찬양예배 - 승리의 부활을 찬양하며 ⑥

- 23(월) 목회자 신학 세미나
성경대학
- 24(화) 강남노회 목사회
주부대학
성경대학
- 26(목) 농어촌 지도자 초청
간담회
경로대학
성경대학
- 27(금) 탈북난민 초청위로회
탈북난민보호 UN청원
일천만명 서명 돌과
성 감사예배 및 UN청원
대표단 파송식
- 28(토) 육사 세례식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

우상숭배의 어리석음

이사야서 강해

이사야 (44:9-20)



이종운 목사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해방된 후에 전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우상주의 국가 바벨론이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1.우상주의 이방나라들은 수치를 당한다

(1)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다 허망하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9절). '허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읽습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생명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신도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2)우상 자체도 무익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9절). '무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뿔요일루'라고 읽으며 무가치한 것을 뜻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허망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가치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의 말이니라"(학 2:8). 은도 금도 하나님 것인데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는 것은 무가치합니다.

(3)우상의 증인은 수치를 당한다.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9절). '수치'는 히브리어로 '예보슈'라고 읽으며 실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우상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미래에 대하여 증거할 수 없으므로 수치를 당할 뿐입니다.

(4)우상을 만드는데 연루된 자들은 모두 실패한다

우상을 만드는 일은 허망하며 무익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선지자는 허망, 무익, 수치, 두려움이라는 말을 중복해서 합니다.

2.우상주의자들의 열심과 어리석음

우상주의자들은 수고롭게 우상을 만듭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기 위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정도로 분망 합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 우상, 물질 우상, 명예 우상 자식 우상을 위해 분망 합니다.

그 사람은 우상주의자들은 또 우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정성을 쏟습니다. 줄로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며 사람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들은 나무를 심고 비를 맞혀서 자라게 하여 그것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이 같은 정성을 드리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14절). 사람은 옳은 일에는 열심히 없고 자기를 위하는 일에는 열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신본주의적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인본주의적 일을 합니다. 인본주의적 열심은 오래 가지 못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그만 두게 됩니다.

3.우상주의의 어리석음과 모순

"이 나무는 사람이 땀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덥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15절). 화목으로 쓸 나무를 가지고 화목으로 쓸 뿐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 같은 모순을 16, 17절이 말하고 18, 19절에서 또 다시 역설체로 진술합니다.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16절). 이 말은 불을 숭배 한다가 보다 따뜻한 불을 만났다는 기쁨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목재를 가지고 연료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은 모르고 도리어 그 목재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것은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극단적 악행입니다. 우상주의자들은 이처럼 어리석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너무 심해서 18, 19

절은 그들의 무지를 7번이나 거듭 지적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갖는 우상주의의 망령된 행동을 반성할 줄 모릅니다.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능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19절). 모두가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도 알지도 못해서 자기의 잘못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전 3:11). 새는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헤엄을 치게 태어난 것처럼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영적인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어둠을 빛이라 할 정도로 종교적으로 우매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재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20절). 재는 물처럼 사람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타도록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속이 시원할 줄 알고 재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자에게는 참다운 만족이 없습니다. 이는 사람이 재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따르는 일은 이처럼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든지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개가 가까이 있는 참새를 잡으려고 헐떡이며 따라가다가 실패한 후 또 시도하는, 다시 말해서 계속 헛된 짓을 계속하며 스스로 속는 일을 합니다.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20절)스스로 속은 심령은 그의 경험보다, 양심보다 강하게 그 속는 방향으로 달음질 합니다. 그리고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짜궁 초청잔치와 달란트시장

지난 주일 옥담층에서는 사랑스런 깜짝시장이 열렸다. 초등부에서 개최한 짜궁초청잔치와 달란트시장이 선 것이다. 7층 초등부실 앞엔 분홍, 하양, 노랑풍선으로 장식된 달란트시장이 서는 것을 알리는 게시판이 예뻐다. 아이들은 그동안 모아 둔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설레었을까? 소풍갔을때 찾은 보물찾기 쪽지마냥 신나는 마음으로 달란트를 보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겠지. 아이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10시가 되자 옥상을 향해 달리기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옥상 문을 열고 시장에 들어선 손님은(?) 5학년 4반의 김주영. 29달란트를 모았다. 무엇을 살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이색적인 풍경은 4명의 친구들이 119달란트를 함께 모아 서로 맘에 드는 것을 한 친구가 지불하며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었다. 혹시 불만이 없다는 질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새로 온 친구에게는 10달란트가 전도한 친구에게 5 달란트가 부상으로 전해졌다. 이 날의 히트는 역시 아이들이 좋아하는 1 달란트인 킥북기.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을 끌기 위한 선생님들의 목청이 높아졌다. 5학년1반의 유은철 선생님은 "자! 여러분 공책 있어요~앨범 있어요~"를 외치며 손님을 끌기에 흥이 났다. 최저가는 1달란트인 킥북기, 오렌지 반쪽 회고가는 35달란트인 탁상시계. 갯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액자가 5달란트. 금강산 관광기념볼펜까지 등장하여 4달란트에 판매됐다. 부활절을 축하하기 위해 예쁘게 포장된 달걀들이 선생님의 사랑과 함께 놓여 있었다. 물론 달걀은 공짜였다. 실속과 친구들은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할인 시간을 기다렸다. 각 반 선생님들께선 비자금(?)으로 넣어 둔 달란트를 꺼내 아이들 손에 쥐어줬고 그동안 모아 둔 달란트보다 선생님의 사랑이 넘치는 1달란트에 감격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30달란트인 농구공을 20달란트에 산 아들은 슬그머니 네 손에 2달란트를 쥐어줬고 덕분에 1달란트인 오렌지 반쪽과 킥북기를 사먹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부장인 이상호 집사는 "4월 짜궁 초청 총동원 달"을 맞아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상으로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해 초등부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달란트 시장을 개최했다고 하셨다. 초등부는 초등학교 4,5,6학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다. 짜궁잔치에 초대된 친구들이 달란트 시장을 통해 우리 서교교회 초등부에 뿌리를 내리고 바람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기를 기도 드린다.

문형미 (편집부)

부활절 각 교회학교 표정



육군사관학교 세례식 - 성찬식 집례

**-28일 (토) 오후 2시 육사교회에서
당일 12시 육사행 버스 출발-**

올해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이 우리교회 주관으로 오는 28일(토) 오후 2시 육사 교회당에서 거행된다. 이번 세례식에서는 육사 신입생도, 재교생도, 육사교회의 신우와 학생 그리고 육사교회 성도가족의 세례식도 집례된다. 세례식 후에는 성찬식도 아울러 열리게 된다. 또한 2부행사로 육사식당에서 친교 및 다과회가 열린다.

농어촌 교회지도자 초청 간담회

우리교회가 돕고 있는 농어촌 교회지도자 초청 간담회가 4월 26일(목) 11시에 웨스트민스터 홀(101호)에서 특강을 가지고 아울러 만나홀에서 간담회 및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 처음 믿기로 결심하신 이정웅 김동숙성도

59년만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정웅, 김동숙 성도(5교구)

목회자 세미나가 개강하던 4월 9일 오후, 고경선 목사님과 인도자인 탁경준 집사님 내외분, 그리고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이정웅 성도님이 경영하는 (주)엘레코 전자 확장 기업 감사예배에 참석키 위해 경기도 화성으로 갔다. 차세대 전자식 안정기 엘레코II에 대한 설명과 시설을 둘러보고 1층 식당으로 들어섰는데 아니 이게 웬일인가? 정면에 잘생긴 돼지머리가 웃고 있고 양옆으로는 막걸리 독이 놓여져 있는게 아니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는지요?
20년 된 친구 경준이가 교회에 가자고 해서 3주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평생 처음으로 59년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겁니다. 예전엔 불교를 믿었죠.

-나와보니 어때요?
새가족부 선생님이 매 주 전화 걸어주시고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느낌이 참 좋은 거 있죠? 그래서 한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온 지 두 주 밖에 되지 않는 저의 개업식에 그 먼 공장까지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개업식에 해프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돼지머리 삶고 막걸리 한 독 갖다 놓고 고사지낼 준비를 다해두었는데 고 목사님 탁사장, 새가족부 부장 집사님과 교회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준비해온 예배 프로그램을 주시며 부장 집사님이 그걸 한쪽으로 치우고 덮어두라고 하길래 덮어놓고 모두 예배를 드렸는데 의외로 많은 직원들과 내빈들이 예배에 기쁘게 참여하고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힘차게 전해주셔서 잘 끝났습니다. 제 아내네 하객 중에 돼지에게 돈도 꽃아 주고 걸하려고 기다리는데 예배를 드리 처음에는 조바심이 났던가 봐요. 미국에서 축하하러 온 딸네도 교회를 다니는데 더 좋아하고 저도 처음 보는 외손자의 축하를 받아 너무 좋았어요.

외손자를 안고 기쁘게 인터뷰에 응하신 이정웅 성도님 부부의 단순한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중 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느낄 수 있었다.

탐방 - 성례부

새벽의 마리아처럼

부활의 새벽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기 있다.

서울 교회 작은 등지 310호실에 불이 밝혀지고 전날부터 성찬 준비에 제 2 권사회 권사님들의 바쁜 손길들로 성례부실은 깨끗이 잘 정리 되어 있었다. 읊조리는 마음으로 성례부실에 들어섰다. 하얗게 단장하신 권사님들의 모습은 천상의 모습같이 아름다워 보였고 장로님의 기도로 회창(이해순) 권사님의 지휘아래 거룩하고 엄숙한 성찬준비는 시작되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타는 목마름으로 애원하시는 주님의 비통한 음성이 적막한 새벽 줄기를 타고 성례부실을 가득 메우는 듯 하였고 작은 성찬 잔에 조심스레 포도주를 따르는 권사님들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흐르는 피를 감당치 못하는 여인들처럼 성례부실은 뜨거운 은혜의 장이 되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물어난 살 조각들! 쓰라린 고난을 자신들의 육체에 채우며 반듯반듯 정성스레 써는 하얀 백설기의 메시지는 서로의 신앙을 말없이 고백하는 은밀한 생명의 시간이었다. 마지막 잔까지 다 부어 높이 쌓여진 금빛 성찬기 위에 뚜껑이 닫혀지고 하얀 성찬보에 덮여진 그 모습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대속의 선포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승리의 감격과 환호이리라.

드디어 피 흘림으로 생명의 환희가 펼쳐진 만찬상! 새벽 하늘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례부실이였다. 새벽에 빈 무덤을 보고 놀란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 땅 끝까지 전하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기도 드린다.

권사님들의 정성스런 수고는 하늘의 보고에서 오늘도 별처럼 반짝이리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 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 28:6) 신동기(편집부)



침묵 가운데 준비되는 성찬식

뮤지컬 호테니우스

입당 감사 10대행사중 하나인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호테니우스>가 4월 28일(토요일) 오후 7:00에 웨스트민스터홀에서 공연된다. 공연후 간단한 복음 제시와 초청의 시간이 있을 예정이다.

김치세미나에 도움주신 가정

김중자 권사 가정, 임광식 장로, 김상열 장로, 조용순 권사, 이옥녀 권사, 김재근 안분선 권사, 전기섭 장로 원영애 집사, 송두심 권사, 윤동준 장로 김명화 집사, 원복순 권사, 이민화 권사, 유근중 집사, 박분옥 집사, 김진영 권사

다음주에 계속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 10대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제19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9차 김치 신학세미나를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대치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 거리

그들은 나의 친구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다. 요즘은 장애인을 더욱 친숙한 벗으로 삼자는 뜻으로 장애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제 우리도 장애우라고 부르면 좋을 듯 하다.

어떤 아이가 길가는 장애우를 보고 "엄마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되었어?"라고 물으니 그 엄마는 "공부 안하고 엄마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돼"라고 쉽게 대답하기도 한다. 이것은 진정 장애우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다. 장애우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그들의 신체적 제약보다 비장애인들이 만든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이며 이것들은 그들에게 더 큰 장애로 다가온다고 한다.

비장애인은 장애우를 존재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노출된 사회적 위험이며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결국 장애우와 비장애인은 장애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비장애인은 장애우를 만났을 때 갖춰야 할 간단한 예절 몇 가지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먼저 시각장애우를 만났을 때는 악수를 청하는 것이 좋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나 혹은 안내견은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이 예의다. 청각장애우와 대화할 경우가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천천히 입모양을 정확히 보여주고 말끝을 흐리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정신지체우를 대할 때는 쉬운 단어를 선택하여 말하도록 하고 그들이 말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도 참을성 있게 들어주어야 하며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다정하고 침착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길에서 넘어지거나 혹은 애쓰며 버스를 타는 지체장애우를 만난다. 그때 무조건 그들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느 경우에는 그들 스스로 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보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또한 그들에 대한 예절이다. 오늘도 우리는 어디서든 장애우들을 만날 수 있다. 따뜻한 마음으로 미소진 얼굴로 다정한 스킨십으로 그들을 기쁘게 해준다면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친구인 것을 알게 해준다면 장애인주일에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이다. 허숙 (편집부)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3일(월) 부터 3일간 해방교회 (이승하 목사) 에서 남여전도회 주최 성회를 인도한다.
- 장명순 집사 (9교구) 유아부에 비디오 1대 기증
- 여현진 권사 (8교구) 비디오 이야기 성경 (신구약) 기증
- 김중자 권사 (3교구) 강남구 일원동 삼성 APT로 이사
- 신종명 선교사 주소 : 중국 산둥 청도 교남시 황산진 만덕창성복장 유한공사

-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신순우 집사 김복순 집사 (4교구)
- ☑ 목회자 세미나 간식 제공 가정 : 탁경준 집사 전정숙 권사 (5교구) 이순례권사 (3교구)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생명은 빛으로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인터넷방송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